

연변대학교 종소리문학사 창립 30주년 기념문집

새 아침을 여는 푸른 종소리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대학교 종소리문학사 창립 30주년 기념문집

새 아침을 여는
푸른 종소리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민금숙

책임교정: 배금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钟声: 朝鲜文 / 钟声文学社编.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11

ISBN 978-7-5449-0050-8

I. 钟… II. 钟… III. 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67328号

钟 声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2.25 字数: 4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050-8 (民文)

版次: 2007年11月第1版 2007年11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1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제29기 《종소리》문학사 핵심일군들



29기 사장
김미란



29기 선전부 부장
심미화



29기 선전부 부장
김련금



29기 대외실천부 부장
한미화



29기 문예부 부장
림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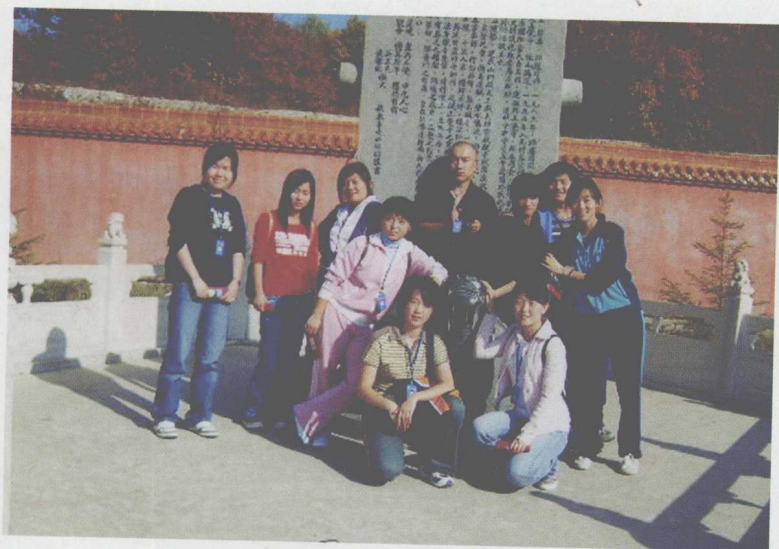
29기 규률부 부장
리철수



29기 생활부 부장
허국화



29기 대외실천부 부장
김강



2006년 가을 돈화의 정각사행



2006년 가을 신입생모집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방문



2007년 김호웅교수님, 석화시인님을 모시고 봄야영을 떠남

새 아침을 여는 푸른 종소리

—《연변대학교 종소리문학사 창립 30주년 기념문집》

서 문

김영수(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원장)

축
사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산하의 학생단체 《종소리》문학사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종소리》문학사는 1978년 김성우, 김호웅 등 선배들의 발기하에 조선—한국학학원 문학도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고 정판룡, 김해룡, 최상철, 김병민, 김관웅 등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그 초창기부터 활발한 문학활동을 벌임으로써 연변대학 캠퍼스문화의 정립과 조선족문단 후비작가의 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간 김병환, 석화, 류연산, 김정훈, 최호, 이상렬, 양은희, 박문봉, 김순희, 조일남, 안영수, 최창록, 김성룡 등 수많은 문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선배들의 뒤를 이어 최근 종소리문학사 성원들인 김명순, 모동필, 서채화, 윤연, 강걸, 최미성 등 학생들이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함으로써 《종소리》문학사의 위상을 높이고 조선—한국학학원을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에 《종소리》문학사 성원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역대 성원들의 작품을 부분적으로 수록한 《종소리문학사 창립 30주년 기념문집》을 편찬, 출판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문학소질 향상과 조선족문학의 산실인 조선—한국학학원의 학과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것이며 우리 대학과 국내외 여러 대학 학생들간의 문학교류에 큰 도움을 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문집의 출간을 위해 흔쾌히 감수를 맡아주신 류연산, 석화선생의 로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종소리》문학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종소리》문학사 창립 30돐을 기념하여

정일남(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당위서기)

축
사

연변대학교 조문학부 77년급—78년급 선배님들이 발기, 창립한 문학단체 《종소리》가 어느덧 그 나이 30세가 된다고 하니 1981년급 같은 학부 출신인 나로서는 감개가 무량하다. 더우기 문학창작에는 문외한인 본인도 학부생시절 연감생심시 아닌 시 한편을 발표한적이 있어 같은 《종소리》가족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종소리》에는 문학을 지향하는 수많은 학도들이 필적을 남겼고 지금 조선족문단의 중견작가들중에는 《종소

리》출신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대학을 입학할 때나 졸업을 앞두고 늘 하는 말이 생각난다. —지금 그대들은 연변대학에서 공부하는것으로 긍지를 느끼지만 향후 연변대학교는 당신들로 하여 자랑스러울것이다.

《중소리》창립 30돐 기념문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작품집을 통해 력대 조문학부 문학도들의 정열적인 삶과 다양한 의식세계를 감지할수 있고 문학이라는 어려운 인생길에서 정진했던 우수한 문인들의 발자취를 헤아려볼수 있다. 동시에 문학창작에 뜻을 둔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중소리》가 이번 기념문집의 출간을 계기로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를 바란다.

• 차례 •

• 축사 •

- 1/서문—새 아침을 여는 푸른 종소리/김영수
3/축사—《종소리》문학사 창립 30돐을 기념하여/정일남

• 시편(38수) •

- 3/교정의 봄(외 1수)/김성우
6/무서운 꿈에서 깨어나(외 3수)/석화
12/그대를 무어라 이름할가(외 2수)/김경훈
15/겨울(외 1수)/오성호
18/형씨 k의 자취방 소묘(외 1수)/리범수
22/거꾸로 흐르라—두만강!(외 3수)/모동필
29/인연(외 1수)/김미
32/산사의 봄(외 2수)/강철영
35/물고기(외 1수)/박동철
38/인생이란(외 1수)/최금희
40/달빛편지/김광일

- 42/어느 눈오는 날(외 2수)/전은주
- 45/영업시간(외 1수)/박영화
- 48/외로움/김미란
- 50/무제/황설련
- 52/만남/김화
- 54/시내물과 조약돌/리해연
- 56/백두산(외 1수)/박예화

◆ ● 수필편(40편) ●

- 61/충전과 업그레이드/김경훈
- 64/뽕두라지(여드름) 심기/우상렬
- 70/리별은 새로운 시작이다/류대식
- 77/선물의 미학/김일
- 80/천지의 넋/김희운
- 83/시험/전영옥
- 89/기다림에 지친 애달픈 마음이어/럼룡철

- 92/고향(외 1편)/리은실
101/라이라크 피는 계절은/리나경
105/전 아빠, 엄마의 친딸이에요/서채화
112/어머니/안태옥
115/다이어트록(외 1편)/박진화
124/황사(외 1편)/주매화
131/눈이 있어 아름다운 소나무/송영애
134/빼앗긴 심령에도 봄은 오는가?/최령련
137/첫눈/강철영
140/김일성종합대학 교수님들이 그립다/최송호
146/가을향기(외 1편)/한미화
151/작은 행복/김애화
154/아름다운 여운(외 1편)/심미화
160/산으로 가자/황설련
163/과외날리기 굴욕전환사(외 1편)/최미령
172/우유커피/정유경
175/멋/김련금

- 178/달속에서의 만남/김은자
- 182/알면 사랑한다/전은주
- 186/사랑하기에 손을 놓는 법/황영
- 190/비상/김창화
- 193/습관/리미향
- 197/시들어도 장미는 아름답다/길국화
- 201/회망속에서 살아숨쉴다/김란
- 205/봄이 내결으로/석추영
- 208/나만의 아름다운 들꽃이기를(외 1편)/최미연

• 소설편(7편) •

- 217/인생술/류연산
- 238/토요일 저녁에 있던 일/리봉우
- 253/아Q의 종속들/박금룡
- 271/빨간 백양나무/장계화
- 287/생활의 향기/김미

296/하얀 동화/리옥결

304/자매/길국화

• 평론편(2편) •

335/대학캠퍼스와 시문학의 꽃다발—젊은 문학도들에게
부치는 글/최미성

351/시적재치와 시적가능성—모동필의 최근 시작품을 읽고
/서채화

• 부록(1편) •

361/민중의 벗—정판룡교수/김호웅

시 편



